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브랜드 치마 패턴 비교

차수정⁰, 안명숙*, 허승연*

⁰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학과

e-mail: carollain@seowon.ac.kr⁰, msan@gwangju.ac.kr*, heos@gwangju.ac.kr*

A Comparison Study of New Hanbok Brand Skirt Pattern for developing of customizing system

Su-Joung Cha⁰, Myung-Sook An*, Seung-Hyun Heo*

⁰Dept. of Fashion & Clothing, Seowon University,

*Divison of Fashion & Jewelry, Gwangju University

● 요약 ●

본 논문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그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신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한복 치마 패턴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판 6개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같은 디자인의 free사이즈 치마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치수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길이는 17cm, 허리벨트길이는 29cm, 허리벨트폭은 4.5cm, 끈길이는 72.7cm, 치마길이는 17.0cm, 치마폭은 90.5cm의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신한복 치마임에도 브랜드에 따라 치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치수규격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성인여성의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신한복 치마 패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신한복(new hanbok), 치마(skirt), 패턴(pattern)

I. Introduction

한류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 착용이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복은 '비싸고 불편한 옷'이라는[1]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결혼식이나 행사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착용하는 의복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복을 입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 한복이 패션이면서 하나의 놀이로 인식되어 한복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한복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1]. 젊은 층의 취향과 생활의 편리함, 현대의 모던함 등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를 접목하여 현대화시킨 한복을 생활한복, 개량한복, 퓨전한복, 신한복 등이라고 일컫는다[2].

본 연구에서는 한복에 패션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 패션의 경계를 넘나들며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한복을 '신한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신한복은 현대 의복인 후드티, 청바지, 위커나 하이힐 등과 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탁 및 관리가 용이하게 울, 면, 네오플렌, 가죽, 합성섬유, 스판덱스, 모피, 레이스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3][4]. 또, 현대의복에서 지퍼, 단추 등을 접목하고 고름의 길이를 줄이며

과거와 다르게 몸매를 드러내는 피트니스 디자인 등 한복의 전통성은 잃지 않으면서 편리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신한복의 경우 과거의 한복과 달리 몸에 피트니스 스타일이 많아지면서 착용하는 사람의 인체에 맞는 의복패턴도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치마 패턴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패턴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II. Study Methods

1. New Hanbok Brand

본 연구를 위한 신한복 브랜드는 시판 신한복 브랜드 중 회사설립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브랜드를 6개 선정하였다 [5-10].

2. Subjects

신한복 치마 디자인은 끈으로 여미는 허리치마를 선정하였다. 허리 치마의 경우 사이즈는 모두 free로 되어 있다.

3. Methods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비교를 위하여 치마를 분해하여 패턴을 옮긴 후 패턴 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부위는 허리벨트폭, 허리벨트길이, 끈폭, 끈길이, 치마길이, 자락끝폭, 치마폭, 주름폭 등이다.

III. Results

신한복 브랜드의 치마 패턴 치수를 비교한 결과, 먼저 허리벨트폭의 경우 F브랜드가 11.0cm로 가장 넓었고, 다음이 A, B브랜드 10cm, C, D 브랜드 7.5cm, E브랜드 6.5cm의 순으로 E브랜드와 F브랜드는 4.5cm의 차이를 나타냈다. 허리벨트길이는 A브랜드가 120cm로 가장 길었고, F브랜드가 91cm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길이는 A브랜드가 77cm로 가장 길었으며 B, D, C, E, F의 순으로 F브랜드는 60cm로 17cm의 차이를 나타냈다. 치마폭에 있어서는 D브랜드가 345cm로 가장 넓었으며, A브랜드가 254.5cm로 가장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마폭은 D, C, E, B, F, A의 순으로 나타났다.

끈폭은 D브랜드가 가장 넓은 4.0cm폭이었으며, A, B와 F브랜드가 3.5cm, C브랜드가 2.5cm, E브랜드가 2.3cm의 순으로 나타났다. 끈길이는 A브랜드가 가장 긴 121.5cm와 123cm였으며, F브랜드가 102.5cm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치마 끝자락의 폭은 A브랜드가 양쪽 9.0cm, B브랜드는 3.3cm와 15.7cm, C브랜드는 4.5cm와 7.5cm, D브랜드는 1.0cm와 4.5cm, E브랜드는 양쪽 6.0cm, F브랜드는 5.5cm와 6.5cm로 분석되었다. 주름폭은 D와 F브랜드는 3.5cm, A, C, E브랜드는 3.0cm, B브랜드는 2.25cm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Conclusions

시판 신한복 브랜드 A, B, C, D, E, F의 허리치마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같은 디자인의 free사이즈 치마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치수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길이는 17cm, 허리벨트길이는 29cm, 허리벨트폭은 4.5cm, 끈길이는 72.7cm, 치마길이는 17.0cm, 치마폭은 90.5cm의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신한복 치마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따라 치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치수규격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성인여성의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신한복 치마 패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ACKNOWLEDGEMENT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9S1A5A2A03040046).

REFERENCES

- [1] H. W. Lim, "Expensive and uncomfortable clothes, prejudice-breaking new Hanbok," Hankook Economics (2016. 2. 6.)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6020521961>
- [2] H. R. Lee, "A Study on the Design of New Hanbok Using Danchung's Flower Pattern(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7.
- [3] J. Y. Yoo, "New Hanbok for men...Captivate Idols to Womn," Joongang News(2019, 9, 14),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946>
- [4] S. E. Lee, "It also goes well with jeans and sneakers...Charm of new Hanbok," YTN News(2019. 11. 5.), retrieved from https://www.ytn.co.kr/_ln/0106_201911050225118599
- [5] <http://www.leesle.com/>
- [6] <http://www.soosulhwa.com/>
- [7] <http://www.coreano.kr/>
- [8] <http://www.mall-dolsilnai.co.kr/>
- [9] <http://www.dailyhan.co.kr/>
- [10] <http://www.wayyu.kr/>